제주 첫 '원도심자율상권구역' 지정

제주시 중앙로상점가 등 포함 12만㎡… 점포 693개
시, 향후 5년 간 100억 투입 상권 활성화 사업 전개
"행정기관보단 지역상인으로 이뤄진 조합 중심 진행"

제주지역 첫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됐다. 제주시 삼도2동과 이도1동, 일도1동 일원을 포함하는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인데,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상인 등이 중심이 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이 지난해 12월 27일 최종 지정됐다. 제주시 원도심 내 전통시장인 중앙로상점가, 중앙지하상가상점가, 칠성로상점가로 꾸려진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조합'이 지난해 8월 제주시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요청한지 4개월여만이다. 앞서 제주도는 신청 서류 보완 요구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23일 지정 승인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은 도내 첫 자율상권구역이다. 중앙로상점가와 중앙지하상점, 칠성로상점가가 위치한 제주시 삼도2동과 이도1동, 일도1동 일원 약 12만㎡로 정해졌다.

제주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이 일대에는 693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190개(공실률 27.4%)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다.

구역 지정이 확정되면서 올해부턴 자율상권조합 중심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다. 올 한 해 19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최대 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억·지방비 50억)이다. 단, 시행 3년 이후 평가를 거쳐 2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도 있어 왔지만 행정기관이 사업을 운영해 온 것과 달리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구역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원도심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르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중기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전까진 자율상권구역이 경남 함양 지역 한 곳이었지만, (제주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율상권구역이 새롭게 지정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검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 절차를 거쳐 제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의 자율상권구역은 제주시 원도심을 포함해 모두 12곳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시 원도심 중앙로 사거리~남문로터리 인근의 모습. 한라일보 DB

동물 방역·복지 등에 328억 투입

도, 4개 분야·86개 사업
21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동물 방역과 위생·복지 분야에 328억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보조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자치도는 '2025년 동물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 계획'에 따라 4개 분야, 86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축협, 축산물 가공업체, 법인 등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방역(162억3000만원) 분야에선 사회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차단, 농가 자율방역 역량 강화 등 4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위생 분야 13개 사업에 7억2900만원, 동물복지 분야 17개 사업 99억2400만원 등이 투자된다.

세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현지 실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된다. 김지은기자

서부 토양에 맞는 마늘 전용비료 개발

제주도농업기술원 "적정 시비와 지하수 보전 기대"

제주 서부지역 토양에 맞는 마늘 전용비료가 개발돼 적정시비와 지하수 오염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서부지역 토양 특성에 맞춘 마늘 전용비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등 서부지역은 마늘, 양파 등 인경채소를 주로 재배하며 비료 사용량이 많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관행시비하면 10a당 질소 70.1~73.7kg, 인산 27.6~30.0kg, 칼리 35.0~35.4kg 등 필요 이상의 많은 비료가 살포된다.

이에 농업기술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마늘 토양검정시비 현장 실증을 실시한 결과, 수량은 관행시비 농가와 차이가 없고 시비량은 질소(78.5%), 인산(58.7%), 칼리(79.0%)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비료생산업체, 제주도가 참여한 가운데 '서부지역 마늘 전용비료 개발 협의회'를 갖고 비료 종류와 성분함량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합비료(21-17-17)는 질소 성분이 과다할 우려가 있어 토양검정시비량이 반영된 3종 복합비료(10-5-3)에 황, 마그네슘, 망간 등 마늘 생장에 필수적인 성분을 첨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비량은 10a당 10포를 기준으로 삼아 재배농가에서 시비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농업기술원은 비료사용처방서 이행 추적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에 맞춤형 전용비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보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청년·중장년 노동자 주거 지원 계속"

도, 2025년도 노동자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시행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중기에 1인당 월 30만원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장년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노동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각각 2018년, 2020년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숙소를 빌려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둔 도내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의 지원 한도(5명)를 기준으로 하면 월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현원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0명까지다.

올해부턴 정규직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주 4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올해 1월과 4월, 7월, 10월 같은 기간(1~10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bit.ly/3MkzeQV)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도 경제일자리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용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 요원 9일까지 모집

제주시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에 참여할 조사 요원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14명, 조사지원 담당자 1명, 입력내검원 16명, 현장조사 도급조사원 102명 등 총 134명이다. 19세 이상으로 채용 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통계조사 유경험자는 관리자 선발 시 우대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귤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귤고리 | 귤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